

# 에티오피아 경제, 2016~17년 연속 성장 둔화 전망

오경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 선임조사역

## 주요내용

- ▶ 최근 수년간 평균 10%대의 고성장을 유지해온 에티오피아 경제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성장 둔화가 전망되며,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도 동반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 ▶ 2015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뭄, 2016년 10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후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사회 혼란이 경제성장 둔화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며, 취약한 세수 기반과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한 쌍둥이 적자 지속도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 취약한 세수 기반,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쌍둥이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외채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며, 외환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의 외환통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됨.

## 1. 이슈 현황

- ▶ 최근 수년간 평균 10%대의 고성장을 유지해온 에티오피아 경제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성장 둔화가 전망되며,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도 동반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 최근 수년간 평균 10%대를 유지해온 경제성장률은 2016~17년 연속 둔화할 전망이다.
  - 에티오피아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4% 포인트 하락한 8.0%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IMF는 에티오피아의 2017년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역시 둔화된 7%대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음.<sup>1)</sup>
  - 에티오피아 경제는 전력, 도로, 통신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투자 증대 및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제공을 기반으로 최근 수년간 평균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음.

1)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April 2017)

## □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는 적자 기조 : “쌍둥이 적자” 상태가 지속될 전망

-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으로 전년(-2.0%)보다 상승한 -2.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동 비율이 -3%대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보건, 교육,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정부 주도의 개발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는 최근 수년간 GDP 대비 -2%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으로 전년(-11.6%) 대비 개선된 -9.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7년에는 -10%대 후반으로 다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커피 등 1차 상품을 주로 수출하고,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과거보다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농작물 생산량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10.1%) 대비 하락한 7.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전년 대비 하락한 6%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과거 30%를 넘나들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 및 저유가 기조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평균 10% 미만으로 많이 낮아졌으나, 기상조건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증감 여부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sup>2)</sup>

표 1. 에티오피아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단위: %)				
	2013	2014	2015	2016(추정)	2017(전망)
경제성장률	9.9	10.3	10.4	8.0	7.5
재정수지/GDP	-1.9	-2.6	-2.0	-2.4	-3.1
경상수지/GDP	-6.9	-11.9	-11.6	-9.1	-10.7
소비자물가상승률	8.1	7.4	10.1	7.3	6.3

자료원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7), EIU Country Analysis Data Tool (검색일: 2017.6.15.)

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에티오피아 국별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4)

## 2. 원인과 분석

▶ 2015년부터 계속된 가뭄과 반정부 시위 등 사회 혼란이 경제성장 둔화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며, 취약한 세수 기반과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한 쌍둥이 적자 지속도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015년부터 계속된 가뭄과 반정부 시위 등 사회 혼란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됨.

- 2015년부터 시작된 엘니뇨(El Niño) 현상으로 인한 가뭄이 2016년에도 계속됨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급감에 더하여 10월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따른 사회 혼란 등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음.
- 2017년에도 가뭄이 전국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약 560만 명의 주민들이 긴급 식량 구호 대상<sup>3)</sup>으로 추정되는 상황)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 에티오피아는 넓은 국토면적에 비해 관개시설, 저수지 등이 매우 미비하며 농업기술도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농업생산량이 강우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수출액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커피의 작황, 주식(主食)인 인제라(얇고 평평한 flat bread의 일종)를 만드는 곡물인 테프<sup>4)</sup>의 수확량이 경제성장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6년 10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

- Oromia 주의 36개 도시와 17개 농촌 지역을 수도로 편입하는 수도 확장계획에 반발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정부 시위와 이에 대한 유혈진압이 계속된 끝에 정부는 2016년 10월 6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경찰 대신 정부군이 전 국토의 치안을 관장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sup>5)</sup>
  - 반정부 시위가 외국인 소유 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공격과 약탈로 확대되어 외국인투자 유치는 물론 기존의 외국인투자 지속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취약한 세수 기반과 자본재 수입 증가는 쌍둥이 적자 해소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농업 부문으로부터의 세입이 극히 적어 세수 기반이 부족한 실정으로, GDP 대비 조세수입(收入) 비중은 2015/16회계연도의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20% 내외)보다 낮은 13.5%로 추정됨.
  - 에티오피아 정부는 세수 기반 확대를 통해 재정수지 적자를 증기적으로 GDP의 3% 이내로 억제코자 하고 있으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정지출 지속으로 인해 향후 동 목표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Reliefweb (reliefweb.int/disaster/dr-2015-000109-eth, 검색일: 2017.6.15)

4) teff, 벼과 참새그령속의 조분.

5)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에티오피아 반정부 시위와 최근 동향” (2016.10.18. 제14호)

- 최근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재의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가 GDP 대비 10%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외국 원조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를 자본재 수입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가 상쇄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 □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물가안정 도모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고수를 통한 물가관리에 힘입어 한 자릿수로 개선되었으며, 2017년에도 긴축 통화정책 지속에 따라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하반기 중 가뭄 지속 여부와 식료품, 연료, 원자재 등의 국제가격 상승세 전망이 변수로 존재함.

### 3. 전망과 시사점

▶ 취약한 세수기반,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쌍둥이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외채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며, 외환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의 외환통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됨.

#### □ 쌍둥이 적자와 인프라 투자 지속으로 외채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 쌍둥이 적자 보충, 인프라 개발 투자 등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5년 31.3%에서 2016년 34.6%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쌍둥이 적자 지속은 대외차입 증가를 가속화하여, 향후 에티오피아의 외채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sup>6)</sup>도 2015년 16.1%에서 2016년 22.2%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어 세계은행 권고기준인 18%를 초과하는 등 단기외채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에는 동 비율이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 외환보유액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외환통제 지속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공여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비르(Birr)<sup>7)</sup>화 가치 하락세와 경상수지 적자 기조 지속 등으로 2015년 36.3억 달러에서 2016년 30.3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에티오피아 정부는 외환부족에 대응코자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실송금, 은행의 수입신용장 발급 등

6) 연간 외채원리금 상환액을 당해연도의 총수출액으로 나눈 비율.

7) 에티오피아 화폐

에 각종 제한을 가하는 등 고강도의 외환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경공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에티오피아는 외국계 은행의 지점, 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등 금융시장 개방도도 극히 낮은 상태임.

#### □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

- 중국은 대규모 원조 및 국영은행을 통한 자금 제공을 앞세워 에티오피아에 진출, 현재 에티오피아의 철도망, 통신망, 전력망 등 기간망 분야의 건설 프로젝트를 중국 기업들이 거의 독점함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아디스아바바-지부티 간의 총연장 752km 철도 건설 및 기관차/열차 공급, 에티오피아 북부의 'Tekeze River 댐(계약규모 약 3.7억 달러)' 건설, 수력발전소들과 아디스아바바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망 건설, 'Grand Renaissance 댐'과 송배전망 건설 등이 있음. 동 프로젝트들에는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공상은행 등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sup>8)</sup>

### EMERiCs

표 2. 에티오피아의 외환보유액 및 외채지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추정)	2017(전망)
외환보유액	2,070	2,618	3,625	3,031	3,228
총외채잔액	11,510	14,571	19,724	24,129	27,166
총외채잔액/GDP	25.0	26.9	31.3	34.6	42.4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7.9	10.7	16.1	22.2	25.0

자료원 : OECD, EIU Country Analysis Data Tool (검색일: 2017.6.15.)

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에티오피아 국별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4)

## 참고문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7)
- EIU Country Report: Ethiopia (2nd Quater 2017)
- EIU Country Analysis Data Tool (data.eiu.com/Default.aspx, 검색일: 2017.6.15.)
- Reliefweb (reliefweb.int/disaster/dr-2015-000109-eth, 검색일: 2017.6.15)
-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에티오피아 반정부 시위와 최근 동향” (2016.10.18. 제14호)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에티오피아 국별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4)

## 💡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